

로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언약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 The Biblical Exegesis and Homiletics of Augustine

우 병 훈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 1. 들어가면서 | 181
- 2.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법 | 182
 - 2.2.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 작품 | 184
 - 2.3.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 185
 - 2.4. 주석적 특징 | 188
- 3.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 | 196
 - 3.1. 설교자의 사역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약 | 196
 - 3.2. 설교자의 정체성과 사역 | 197
 - 3.3. 설교자의 임무 | 199
 - 3.4. 설교자 아우구스티누스 | 201
 - 3.5. 설교자의 청중 | 203
 - 3.6. 설교 내용상의 특징 | 205
 - 3.7 설교의 수사학적 특징과 설교에 사용한 비유들 | 206
 - 3.8. 삶 속에서 전해지는 설교 | 208
 - 3.9.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예전과 설교 | 210
 - 3.10.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전달법 | 212
- 4. 나오면서 : 참된 성경주석가와 참된 설교자를 기다리며 | 214



요약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일평생 성경을 주석하고 설교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라는 작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해석학과 설교론을 잘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편의 성경주석을 썼으며 주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 그는 초기에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로 성경적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고수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석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삼주덕(三主德)을 촉진시키고 완성하는 것이 주석과 설교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그리스로마의 기호론을 성경적 가르침에 맞게 변용하여 자신의 주석에 적용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규칙과 보편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주석에 임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경을 주석했으며, 건전한 성경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시대에 응답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해석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교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는 이단들을 배격하였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성경을 주석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법은 그의 설교론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는 목회자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사역이라고 보았다. 그는 수천 편의 설교를 전했으며, 그중에 562편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자가 그리스도에 의해 치료 받아야 할 환자이며 동시에 말씀으로 신자들의 영적 질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성경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추구했다. 비록 그가 원고 없이 즉석에서 설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없이 설교에 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참된 신앙의 원리를 잘 설명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그의 성경주석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강조했다. 탁월한 수사학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달 방식이 아니라 전달되는 내용이었다. 특별히 그는 설교의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기를 원했다. 설교자의 삶과 유리된 설교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찬식과 기도와 송영이 들어있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설교를 인식했다. 그에게 설교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적 도구였다.

The Biblical Exegesis and Homiletics of Augustine

주요어

아우구스티누스, 주석, 해석학, 설교, 설교학

Abstract

The Biblical Exegesis and Homiletics
of Augustine

Prof. Dr. Byung-hoon Woo

Augustine, who was converted through his reading of the book of Romans, interpreted and preached the Bible all his life. His work, *On the Christian Teaching (De Doctrina Christiana)* shows Augustine's biblical hermeneutics and homiletics. He wrote several Bible commentaries and had a clear understanding of biblical exegesis. Although initially influenced by Neoplatonism, he became more and more explicitly biblical in his thought. Augustine argued that the purpose of biblical exegesis lay in the dual commandment of the love of God and neighbor. He regarded it as the purpose of exegesis and preaching to promote and fulfill the Christian triad of faith, hope and love. He also applied the Greco-Roman theory of signs to his biblical exegesis and adapted it to biblical teachings. Augustine interpreted the Bible in honor of the rules of faith (*regula fidei*) and the authority of the universal church. Above all, he commented on the Bible for the maturity of his own faith and responded to his own

age through sound biblical understanding. His biblical hermeneutic is Christ-centered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tributing to the church. He rejected the heretics and commented on the Bible for well-formed church ministry.

Augustine's exegesis is closely related to his homiletics. He considered the ministry of the Word to be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the pastor. He delivered thousands of sermons, of which 562 remain to this day. Augustine said that the preacher is a patient to be healed by Christ, and at the same time, a doctor to repair the spiritual disease of believers through the Word. Throughout his sermons, Augustine helped the believer to explain their lives using the language of the Bible. He sought preaching that moved the hearts of the audience. Though he preached extempore without a manuscript, he by no means preached without preparation. His sermons were always spiritually deep, and he explained well the principles of true faith. Augustine's sermons emphasized love just like his biblical commentary. As a prominent rhetorician, Augustine also studied deeply how sermons should be delivered. But what was still important to him was the content of the message, not just the method of delivery. Specifically, he wanted to practice the content of his sermon by himself. He believed that when the life of the preacher was separated from the preaching, it would not benefit the audience at all. Augustine recognized the sermon as a part of the worship which was composed of the sacraments,

prayer, and doxology. To him, the sermon was a spiritual tool that delivers Christ, makes people seek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leads them to the Father.

Keywords | Augustine, Exegesis, Hermeneutics, Preaching, Homiletics

1. 들어가면서

본 논문의 목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의 특징들을 두루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둘을 묶어서 다루는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작품인 『기독교적 가르침』(De Doctrina Christiana, 이하 ‘doc. Chr.’로 약칭)에서도 그 둘을 함께 다루기 때문이다.¹⁾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 속에서 성경주석법과 설교론은 떼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본 논문도 그 둘을 나란히 놓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이 기존 견해를 반박하기보다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들을 소개하는 데 있으며 또한 국내외 학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을 동시에 소개하는 연구가 드문 만큼, 본고에서는 현대 학계의 논쟁적인 요소는 생략하고 가급적 평이한 에세이 형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담아낼 것이다.²⁾

1) 『De Doctrina Christiana』라는 작품은 아래와 같이 우리말 번역이 있다. Augustinus, 『그리스도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하지만 책의 제목을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을 주석하는 방법과 그것을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라는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 대한 소개와 거기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학과 설교학에 대한 설명은 아래 줄고를 참조하라. B. Hoon Woo, “Augustine’s Hermeneutics and Homiletics in *De doctrina christiana*: Humiliation, Love, Sign, and Discipline,” *Journal of Christian Philosophy* 17.2 (2013): 97-117.

2)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에 대한 약어들은 학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가령 “ep.”와 “s.”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와 『설교』를 가리킨다. 그의 작품들의 약어들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들을 참조하라. Allan D.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xxxv-xlii; Possidius,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Vita Augustini, 이연학, 최원오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8), 170-81.

2.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법

2.1.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신학자들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354-430)만큼 그 생애와 사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역시 삶의 궤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신학을 전개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을 때에 네 가지를 추구했다.³⁾ 성(性), 명예, 지식(수사학, 철학), 종교(마니교)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으로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를 향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영혼 쉬지를 못하나다.”(『고백록』 1권 1장)라고 적었듯이, 그의 영혼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게 된 계기는 네 가지가 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친구들의 권고, 로마서를 읽었던 것이 그것이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13장 13-14절 부분을 읽다가 회심했다고 『고백록』 8권 12장에서 적고 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 즉, 기독교와 마니교와 그리스-로마의 고전문화를 고려해야

3)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Peter Brown,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정기문 역, 서울: 새물결, 2012)을 보라. 이 책의 제 1판에서 브라운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상당히 엄격했고 교회 정치에 민감했던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2000년에 나온 제 2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목회적인 마음으로 이해심 있게 사람들을 대한 것으로 묘사한다. 그 사이에 ‘돌보(F. Dolbeau) 설교집’과 ‘디브야크(J. Divjak) 편지들’이 발견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새로운 면모에 대해 피터 브라운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젊은 시절 피터 브라운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오해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제 2판이기에 이런 수정 사항을 읽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회심하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바울 르네상스”(Paulusrenaissance)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⁴⁾ 라틴교부들은 다른 지역 교부들에 비해서 늦게 바울 주석서를 쓰기 시작했다. 4세기 중반까지 바울 서신서 주해는 주로 헬라 교부들과 시리아 교부들에 의해 이뤄졌다.⁵⁾ 하지만 4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라틴 교부들이 쓴 바울 주석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약 360년부터 409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2개의 바울 주석서가 여섯 명의 저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⁶⁾ 이를 “바울 르네상스”라고 부른다.⁷⁾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이러한

4) Wolf-Dieter Hauschild,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vol. 1, *Alte Kirche und Mittelalter*, 2nd e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0), 224. 이 역사서는 1판(1995년)과 2판(2000년)은 하우셴트가 썼으나 그의 사후(死後) 드레콜이 개정하여 새로운 판을 2016년에 내놓았다. Wolf-Dieter Hauschild and Volker Henning Drecoll,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vol. 1, *Alte Kirche und Mittelalter*, 2nd e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6), 371-72. 나는 드레콜의 개정판을 선호하지만 때때로 하우셴트가 썼던 판의 통찰력과 명문(名文)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서, 이전판을 사용하기도 한다.

5) J. Lightfoot, *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Galatians* (London, 1874), 218-26; C.H. Turner, “Greek Patristic Commentaries on the Pauline Epistles,” in J. Hastings (ed.), *A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 (Edinburgh, 1898), 484-531. Andrew Cain, “Jerome’s Pauline Commentaries between East and West: Tradition and Innovation in the Commentary on Galatians,” in *Interpreting the Bible and Aristotle in Late Antiquity: The Alexandrian Commentary Tradition between Rome and Baghdad*, ed. Josef Loessl and John W. Watt (Farnham, Surrey, England; Burlington, VT: Routledge, 2011), 91 - 110(이 각주는 이 책의 91n1을 참조했다.)

6) 순서대로 아래와 같다. 마리우스 빅토리누스(Marius Victorinus)가 360년대 초중반에 작성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주해; 암브로시아스터가 370년대와 380년대 초에 작성한 전체 바울 서신서 주석; 히에로니무스가 386년에 작성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도서 주해; 아우구스티누스가 396년 이전에 작성한 로마서(미완성)와 갈라디아서 주해; 부다페스트 익명의 저자가 396년부터 405년 사이에 작성한 전체 바울 서신서 주석; 펠라기우스가 406년부터 409년에 작성한 전체 바울 서신서 주석. Cain, “Jerome’s Pauline Commentaries between East

풍토에서 이뤄진 것임이 분명하다.

2.2.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 작품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암브로시우스는 이사야서를 읽으라고 조언했다(『고백록』, 9.5.13).⁸⁾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초신자 시절이었던 당시에는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이사야서가 “복음에 관해서와 이방인들의 소명에 관해서 다른 이들에 앞서 적절하게 예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백록』, 9.5.13).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을 깊이 연구하고 주석도 썼는데, 그 결과 그는 시편을 기독교의 정체성의 정수로 삼게 되었다. 공적 사역 초기에 그는 마니교

and West,” 91n2에서 재인용.

7) “바울 르네상스”라는 표현은 프릴리히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K. Froehlich, “Which Paul? Observations on the Image of the Apostle in the History of Biblical Exegesis,” ed. Bradley Nassif,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279 - 99 (특히 285쪽). 후기 고대 서방 신학에서 바울 연구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들을 보라. Maria Grazia Mara, “Ricerche storico-esegetiche sulla presenza del corpus paolino nella storia del cristianesimo dal II al V secolo,” in M. G. Mara, *Paolo di Tarso e il suo epistolario* (L’Aquila: Japadre, 1983), 6 - 64; J. Lössl, “Augustine, ‘Pelagianism,’ Julian of Aclanum, and Modern Scholarship,” *Zeitschrift für antikes Christentum* 10 (2007): 129 - 50, 특히 129 - 33. 교부신학에서 바울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을 보라. M. Wiles, *The Divine Apostle: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in the Early Church* (Cambridge, 1967); Andreas Lindemann, *Paulus im ältesten Christentum. Das Bild des Apostels und die Rezeption der paulinischen Theologie in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bis Marcion* (Tübingen, 1979); F. Cocchini, *Il Paolo di Origene. Contributo alla storia della recezione delle epistole paoline nel III secolo* (Rome, 1992). 이상 Cain, “Jerome’s Pauline Commentaries between East and West,” 91n3에서 재인용.

8) Augustinus, 『고백록』(Confessiones, 최민순 역, 서울: 바오로딸, 2011), 9.5(352쪽).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번역으로는 아래의 책이 좋다. Augustinus, 『고백록』(Confessiones, 성염 역, 과주: 경세원, 2016).

를 반박하여 창세기 주석을 썼다. 그리고 『창세기 축자해설』을 썼다.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을 썼다(392년). 이어서 『바울의 로마서에 나온 명제 주해』(394년)를 썼고, 나중에 미완성이긴 하지만 『로마서 주해』도 썼다. 『갈라디아서 단권 주해』를 썼는데, 이것은 한 성경 전체를 다 다룬 최초의 시도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재론고』, 1.23.1에서). 나중에는 『복음서 저작들의 일치』에 대해 글을 썼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뤘던 창세기, 시편, 이사야, 복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은 모두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key)가 되는 성경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작품들을 쓸 때에 신자로서 쓰기를 원했다. 성경주석은 오직 믿는 자만이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비중생자의 신학”(theologia irrogenetorum)은 불가능하다.

2.3.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은 오늘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주석과는 다르다. 주석 작업에 많은 철학적 사유와 다양한 인문학적 통찰이 함께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성경주석과 철학적 사유는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계시를 항상 세속 철학보다 우위에 두었음을 기억해야 한다.⁹⁾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9) Joseph S. O’Leary, *Questioning Back: The Overcoming of Metaphysics in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Winston Press, 1985)의 제 4장을 참조하라.

가 “플라톤”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의 『고백록』 III, 4에서 키케로가 플라톤주의를 논한 『호르텐시우스』를 읽었다고 하고, 『고백록』 VII, 9.13에서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libri Platonici)을 읽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가 “플라톤” 작품을 직접 읽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신플라톤주의자들인 플로티노스(204/5-270)와 포르퀴리오스(234?-301?)의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¹⁰⁾

타일러(Theiler)는 포르퀴리오스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직접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포르퀴리오스를 통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오코넬(O’Connell), 솔리냐크(Solignac), 바른스(T. D. Barnes) 등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포르퀴리오스는 읽은 적이 없고, 그가 회심할 무렵에 오직 플로티노스만 읽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뒤 로아(Du Roy)는 회심 직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플로티노스만 읽었고, 그 이후에 387년경에 영혼의 불멸에 관해서 논할 때에 포르퀴리오스의 『제테마타』(Zetemata)를 읽었을 것이라 추정한다.¹¹⁾ 쿠르셀(Courcelle)은 플로티노스와 포르퀴리오스 둘 다,

10)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서적들을 참고할 수 있다. Scott Macdonald, “The Divine Nature,” in Eleonore Stump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Cambridge, U.K.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71; Frederick Van Fleteren, “Plato, Platonism,” Frederick Van Fleteren, “Porphyry,” Anne-Marie Bowery, “Plotinus, *The Enneads*,”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각각 651-54, 661-63, 654-57; Willi Theiler, *Porphyrios und Augustin* (Halle, 1993); Oliver du Roy, *L’Intelligence de la foi en la Trinité selon saint Augustin* (Paris, 1966); Pierre Courcelle, *Recherches sur les Confession de saint Augustin* (Paris: de Boccard, 1950, 1968); John O’Meara, “Philosophy from Oracles” in *Augustine* (Paris, 1959); John O’Meara, “‘Philosophy from Oracles’ in Eusebius of Caesarea and Augustine’s Cassiciacum Dialogues,” *Recherches Augustiniennes* 6 (1969): 105-38; T. D. Barnes, *From Eusebius to Augustine: Selected Papers, 1982-1993* (Brookfield, VT: Variorum, 1994).

11) 판 플레테런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독백록』 3을 쓸 때에 포르퀴리오스의 『제테마타』를 참조했을 것으로 본다. Frederick Van Fleteren, “Ascent of the Soul,”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64. 또한 『영혼의 불멸성에 관하여』(De immortalitate animae)를 쓸 때 역시 『제테마타』를 참조했을 것으로 본다. Van Fleteren, “Porphyry,” 662.

회심하기 전의 젊은 시기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오메아라(John O’Meara)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플로티노스와 포르퀴리오스가 모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영향을 미쳤는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들을 읽었다면 언제, 어느 작품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물론 오늘날 대세는 이들 두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우리(Anne-Marie Bowery)는 특별히 그 영향 지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아름다움의 개념, 하나님을 봄, 신적 조명에 대한 믿음, 영혼에 대한 강조,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신의 정화,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는 관점, 시간과 영혼에 대한 개념, 영적이고 지성적인 공동체에 대한 갈망 등이다.

그러나 보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 차이점도 지적하고 있다. 플로티노스적 비인격적 일자와 비교해서(Enneads VI, 7.1),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원래는 선했는데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써 악해졌다고 본다.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물질 속에 들어감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Enneads I, 8.10; I, 8.15).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 의한 인간 창조를 믿지만, 플로티노스는 개별 영혼이 보편 영혼의 부분이라고 본다(Enneads III, 5.3).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둘은 차이를 보인다.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 영혼은 일자와의 조우를 통해 이뤄지는데(Vita Plotini, 24),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구원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고백록』, 7,20-21; 26-27).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오델리(O’Daly)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는 플라톤적인 사상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가, 성경적 가르침에 의해 차츰 플라톤적인 사상에서 멀어져 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4. 주석적 특징

2.4.1. 주석의 목적

『기독교적 가르침』(이하 ‘doc. Chr.’로 약칭)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주석의 가장 핵심 원칙은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계명의 목표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임(딤후 1:5)을 인식하고, 자기의 성경 이해를 오로지 이 점에 귀결시킨다면, 성경주석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doc. Chr. 1.40.44).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마태복음 22장)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의 목적이다.¹²⁾ 그에게는 “전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의 이중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무게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것을 그는 “사랑의 질서(ordō amoris)” 속에서 강조한다.

2.4.2. 사랑의 주석학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신학자이다. 에티엔느 질송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상이 사랑에 의해서 통일되면 통일될수록 그 사상은 더욱 아우구스티누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주석가의 마음은 오직 사랑에 근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한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doc. Chr. 2.42.63).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¹³⁾ 16-17세기의 청교도들은 설교하지 못할 내용은 신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천하지 못할 내용은 설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청교도들의 실천적, 실험적, 경험적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2.4.3. 겸손의 주석학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주석에 있어서 겸손을 매우 강조한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성경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doc. Chr. 2.41.62).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로마의 수사학과 철학을 배우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파악한다. 이런 것을 겸손하게 배워서 기독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doc. Chr. 2.40.60-2.42.63). 목회자가 단지 신학서적이거나 신앙서적, 설교집 외에도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교양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4. 기호의 주석학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주석에 있어서 기호(sign)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주석가는 기호의 다양한 의미를 구분하고 그것을 성경의 문맥에 따라 적용하면서 주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호(말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doc. Chr. 1.6.6).

『기독교적 가르침』의 2권과 3권을 보면 기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기호란 다른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doc. Chr. 1.2.2; 2.1.1). 가장 흔한 기호는 말들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12) 한병수,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 서론』(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117에서 “어거스틴 해석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구절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라고 잘 정리하고 있다.

13) Peter T.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xxvii.

인간에게 기호들을 사용해서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doc. Chr.* 1.6.6).¹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로마 고전기 문학과 철학의 기호이론을 성경주석에 처음으로 접목시킨 사람이다.¹⁵⁾ 기호는 ‘자연적 기호’와 ‘약속된 기호’가 있다. 자연적 기호라는 것은 연기와 같이 그것을 보면 불이 났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기호이다. 약속된 기호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물들 사이의 약속’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다. 인간들 사이의 약속된 기호는 ‘말로 된 기호’와 ‘말이 아닌 기호’가 있다. 언어와 제스처를 생각하면 되겠다. 말로 된 기호는 다시 ‘발설된 말’과 ‘기록된 말’이 있다. 구어(口語)와 문어(文語)이다. 기록된 말은 다시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모호한 기호들’이 있다. 이 각각은 다시 ‘적절한 기호들’과 ‘전이된 기호들’이 있다. 전이된 기호들은 이방인의 기호들이다.¹⁶⁾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호와 사물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이유는 그 관계성 속에서 성경의 실제 세계가 제대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현실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성경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다. 성경을 주석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성경 세계의 실제성과 현실성을 믿으면서 주석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의 표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¹⁷⁾ 그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표지들을 제대로

해석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자체가 기호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4.5. 신앙의 규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에 “신앙의 규범”은 “신조들”과 동일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신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 가르침』(3.2)에서 “신앙의 규범”은 “보다 분명한 성경 구절들과 교회의 권위”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삼위일체적 정통 신앙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삼위일체론』, 1.11.22). 따라서 성경의 의미가 모호할 때는 교회와 전통에 문의해야 한다(『편지』, 164.6; 『도나투스파 문법학자인 크레스코니우스에게(Ad Cresconium grammaticum partis Donati)』, 1.33.39).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언급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시편 강해(en. Ps.)』, 30.2.2.8). 그렇기 때문에 성경해석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고는 교회로부터 성경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도 역시 성경이 신학과 신앙생활의 근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로버트 그랜트(R. M. Grant)의 말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한 전통주의자는 아니지만 신앙의 규범의 권위를 존중한다.

14) Michael Cameron, “Sign,” in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794.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대항하여 구약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물(res)과 기호(signa)에 대한 해석학을 발전시켰다. 아래 글을 보라. Ekkehard Mühlenberg, “Augustin,” in Hans D. Betz, Don S. Browning, Bernd Janowski, and Eberhard Jüngel eds.,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vol. 1 (Tübingen: Mohr Siebeck, 19984), 964.

15) Cameron, “Sign,” in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794.

16) Karla Pollmann, “Augustine’s Hermeneutics as a Universal Discipline!?” 215에 나오는 도표 9.1을 보라.

17) 로완 윌리엄스가 이 사실을 잘 관찰하였다. Rowan Williams, “Language, Reality and Desire in Augustine’s *De Doctrina*,” *Literature and Theology* 3 (1989), 138-50(특히 141);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55에서 재인용.

18) Robert B. Eno, “Authority,”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80-82(특히 80).

... 주석가는 문자적 진술과 비유적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 만일 주석가가 여전히 혼동된다면 신앙의 규범을 참조해야 한다.”¹⁹⁾

2.4.6. 보편적 권위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전체의 보편적인 일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²⁰⁾ 이것을 “보편적 권위”(auctoritas catholica)라고 불렀다. “보편적 권위”란 수평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에 보편 교회들의 일치된 신앙 고백을 뜻하며, 수직적으로 볼 때에는 역사적으로 늘 그렇게 믿어져 오던 내용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적 계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니교도 반박 편지(con. ep. Man.)』(4)에서 “주교들의 계승”이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다(『신국론』, 15.23도 참조).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말들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도나투스파들과의 논쟁을 주제로 하여 했던 주장들임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 북아프리카에서는 지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나투스파를 대항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도 역시 지방 회의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방 회의의 결정은 나중에 수정되기도 했던 것이다(『세레론』, 2.3.4).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체 교회의 완전한 합의”를 가장 최고의 권위로 여겼고, 바로 그것을 “보편적 권위”(auctoritas catholica)와 동일시했다(『세레론』, 1.18.28).

어떤 사람들은 때로 『편지』, 43.7 등에 근거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주교좌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은 나중에 로마의 권위를 두고 논쟁이 불거지기 이전에 작성되었

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의 권위를 보편 교회의 일치에 두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편 교회”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음도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²¹⁾

2.4.7. 신앙과 주석의 관계

교부들의 특징은 성경해석을 자신의 삶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해석을 단지 학문적인 작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삶과 유리된 성경해석에 대해 알지 못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이다. 그에게 주석이란 개인의 영적 여정의 일부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 자체를 정서와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여행이라고 묘사했다(『기독교적 가르침』, 1.16 참조).²²⁾ 그는 신앙을 갖기 전에 남다른 고민들을 겪었다. 그런 방황과 고민을 겪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도 순례자처럼 성경을 읽었다.²³⁾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석했다. 단지 설교를 할 내용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그의 성경주석의 목적이었다.

19) Robert M. Grant,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rev. ed. (London: Black, 1965), 87;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5에서 재인용.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적 가르침』, 3.2와 3.5를 보라.

20) Eno, “Authority,” 80.

21) Eno, “Authority,” 82.

22)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84.

23) 아우구스티누스의 순례자 신학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 아래 논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B. Hoon Woo, “Pilgrim's Progress in Society: Augustine's Political Thought in the City of God,” *Political Theology* 16, no. 5 (2015): 421 - 41.

2.4.8. 주석과 시대 상황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시대에 반응하면서 주석하였다. 그는 시대의 학문과 문화를 주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것은 바실리우스가 취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바실리우스는 마치 꿀벌이 여러 꽃에서부터 꿀을 두루 취하듯이,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 문학 작품이나 철학 작품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속한 시대정신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정신에 대한 성경적 처방을 내놓았다. 그것의 대표적인 작품이 『신국론』이다. 이 작품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서술인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설명하고 있는 대작이다.

2.4.9. 주석과 기독교론과 교회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석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노력했다. 또한 교회를 위한 주석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방법론은 해석에 있어서 기독교론적이며, 적용에 있어서 교회론적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적인 해석을 시도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의 비유를 풍유적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학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의 일반적인 주석 관행을 생각했을 때, 그의 비유 해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지나친 풍유화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또한 기독교론적 집중과 교회론적인 열정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24) 이에 대해서는 우병훈, “교부 바실리우스에 의한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수용,” 『기독교철학』 2(2004): 7-47을 참조하라.

2.4.10. 이단의 주석 거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불건전한 신앙단체나 이단들의 주석은 거부하였고, 참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파의 주석을 거부한 것과 같은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타나시우스에게 좋은 주석이란 정통 신앙을 견지하는 주석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권위를 매우 존중했다. 그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신앙이 흔들리면 사랑도 차갑게 식을 것이다.”라는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다.²⁵⁾

2.4.11. 목회와 설교와 주석

아우구스티누스는 목회와 설교가 주석의 가장 든든한 기초임을 주장하였다. 그 자신이 평생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주석하였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목회하고 설교하는 자만이 진정한 주석가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속적인 설교가 성경주석의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수천 편의 설교를 전했는데, 그중에 562편가량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일서 설교』와 『시편 해설』은 매우 유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역사와 철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²⁶⁾

25)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적 가르침』, 1.37. Anthony C. Thiselton, 『성경해석학 개론』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87을 참조.

26)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적 가르침』, 1.35, 36; 2.16.23; 2.28.42, 2.40.60 등을 보라.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116; 티슬턴, 『성경해석학 개론』, 187.

3.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²⁷⁾

3.1. 설교자의 사역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약

아우구스티누스가 목회자로 서품 받았을 때에 그는 목회자를 “백성들에게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례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렸다(ep. 21.3). 4년 뒤에 그가 감독으로 수입될 무렵에 그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강조했다(29.7).

히포의 주교는 설교자와 그 직무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여 가르쳤다. 첫째로, 그는 설교자가 누구인지 가르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이다(s. 114.1).”라고 가르쳤다.

둘째로, 그는 설교자의 임무에 대해 8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그가 40년의 목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나타나 있다(doc. Chr. 4.4.6).²⁸⁾ 그 8가지는 아래와 같다.

(1) 거룩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한다. (2) 올바른 신앙을 수호한다. (3)

27)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에 대해서는 위에 제시된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외에도 아래의 문헌들을 참조하라. George Lawless, “Preaching,”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675-77을 참조하라. G. Lawless, “Augustine of Hippo as Preacher,” in *Saint Augustine the Bishop: A Book of Essays*, ed. Fannie LeMoine and Christopher Kleinhenz (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94), 13-37; G. Lawless, “Augustine of Hippo (354-430),” in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ed. W. H. Willimon and R. Lischer (Louisville, 1995), 19-22; Van der Meer, 1961, 405-67; P.-P. Verbracken, “Lire aujourd’hui les Sermons de saint Augustin. A l’Occasion du XVIe Centenaire de sa Conversion,” *NRTh* 109 (1987): 829-39, ET, “Saint Augustine’s Sermons: Why and How to Read Them Today,” *Augustinian Heritage* 33 (1987): 105-16.

28) Lawless, “Preaching,” 65.

선한 것은 모두 가르친다. (4) 악한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5) 진리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기고자 노력한다. (6)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다. (7)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8)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각인시킨다.

3.2. 설교자의 정체성과 사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은 『기독교적 가르침』, 제 4권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일반 성도들을 향해 전했던 설교(*sermones* 또는 *sermones ad populum*)”는 총 562편가량 남아 있는데, 이 숫자는 위작 판단 여부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약간씩 차이는 있다.²⁹⁾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이전의 사람의 설교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역사상 아주 희귀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설교 외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은 134권 정도이다. 그의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든지 깊은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40년 정도 매주 주일과 토요일에 설교를 전했다. 그가 설교에 대해 비유한 표현들을 보면 그가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³⁰⁾ 그는 설교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접시와 같다고 했다(s. 339.4).³¹⁾ 설교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웨이터로서 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260D.2; 296.5, 13). 설교자는 절대 집주인이 아니다. 오히려 접시를 놓는 사람인데, 접시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빵을 그 접시 위에 올려주신다(126.8).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 설교자는

29) sermo나 그것의 복수형인 sermones라는 용어 외에도 enarratio, tractatus 등의 용어도 그의 설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30) Lawless, “Preaching,” 675.

31) 이하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s.”로 약칭하며, 여러 설교들을 이어서 인용할 시에는 “s.”라는 약어마저도 생략하고 설교문의 번호와 단락만을 기입하겠다.

집의 하인이다(90.3-4).

또한 설교자는 의사이다. 물론 설교자 자신이 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9.4; 10.11).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에서 의사로서의 설교자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모티프이다. 고대 교부들의 신학과 설교론에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요소가 들어간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점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한다.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³²⁾ 설교자는 사업할 때 중간 상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사용하여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언약적 표현됨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설교자 자신은 매우 부족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며 겸손해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적한다(37.20).

설교자들은 가수들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하프나 기타(lute)는 십계명이며, 그들의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것이다(9.5-6). 설교자는 회중을 형성하는 자이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의 가마와 같다. 고난의 화덕이 성도들을 빚어내듯이 설교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빚어낸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다(256.3). 설교자는 매와 회초리를 든 선생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같다(213.11). 그들이 아버지라는 점에서 그들은 아들이나 형제가 아니다(255A.1). 설교자와 청중 모두 오직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시는 학교에 다니는 자들이다(270.1; 298.5; 261.2; 278.11).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내적 스승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교사론』, 14.46).³³⁾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는 설교자는 주님의 자분을

나눠주는 자들이지 절대 모으는 자들이 아니다(319A; 229E.4). 그것은 주님의 돈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보다 더 관대하게 성도들에게 베풀지 못해서 늘 성도들에게 빚을 지게 된다고 고백한다(260D.2).

하나님은 설교자가 아니지만 매우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259.6). 그리스도는 내적인 스승이시다. 말들이 귀에 닿지만 오직 내적 스승만이 마음을 조명하실 수가 있다(Jo. ev. fr. 26.7). 설교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이 된다(s. 227). 모세와 엘리야는 물을 담은 그릇에 불과하고 오직 주님만이 샘이 되신다(78.4). 설교는 사람들을 꾸짖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유쾌하지 못한 사역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82.15). 마지막으로, “복음의 설교자들은 주님의 밭이 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는데, 이는 이사야 52:7을 반영한 설명이다(99.13).

3.3. 설교자의 임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에 따르면, 설교자의 임무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성경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³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 본인이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말씀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만이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길은 설교자 자신이 성경의 실재성을 경험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믿었다.³⁵⁾

32) 이에 대해서는 Paul R. Kolbet, *Augustine and the Cure of Souls: Revising a Classical Ideal*, 1 edition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9), Part Three를 보라.

33) 여러 작품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를 “스승” 혹은 “내적 스승”이라고 부른다. 『교사론』 10.32-35, 14.46; 『기독교적 가르침』, praef. 8.16-17; 『고백록』, 13.31.46을 보라. 그리고 Karla Pollmann, “Hermeneutical Presuppositions,”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426도 보라.

34) 이것은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을 내가 만든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하라. Pollmann, “Hermeneutical Presuppositions,” 426 - 429(특히 426-27을 보라);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66-67; Williams, “Language, Reality and Desire in Augustine's De Doctrina,” 138-50.

35)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67: “he [=Augustine] believed that the way for

그는 성경의 핵심이 믿음-소망-사랑이라고 했다.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이 기본 덕목들을 강조하길 원했다. 심지어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이 좀 틀렸어도, 믿음-소망-사랑의 삼주덕(三主德)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할 정도였다.³⁶⁾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나의 중심은 곧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다(『고백록』, 13.10).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마음의 무게가 이끌려간다는 것이다. 그는 “바로 너의 욕망이 곧 너의 기도이다(Your very desire is your prayer).”라고 생각했다(『시편강해』, 37.14). 아무리 입으로 거룩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속의 욕망이 사실상 자신이 기도하는 바를 보여준다. 욕망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따라서 설교자는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마음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삶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 시간에 마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87-88년 작품들에서 “마음(cor)”이란 단어를 32번 사용했고, “정신(mens)”이란 단어를 143번 사용했다. 그런데, 388-91년 작품들에서 “cor”는 43번, “mens”는 115번 나온다. 그러다가 『고백록』에서는 “cor”가 187번 나오고, “mens”가 78번 나온다. 생애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을 “지성”보다 더 자주 언급했다는 뜻이다.³⁷⁾

설교자가 단순히 마음이란 단어를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움직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도록 돕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listeners to learn divine truth was to be drawn into the Scriptures by a preacher who shares his own experience of that same reality.”

36)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어떤 설교가 주석에 있어서 좀 틀렸더라도 사랑을 더 증진시켰다면 좋은 주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37)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76.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설교자의 직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내면세계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³⁸⁾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877번 이상 나온다. 성경에서 마음은 지, 정, 의를 관할하는 중심이다. 따라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잘 지키도록 설교하고 세상 문화나 죄의 세력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돕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이다.

따라서 참된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세상성과 싸운다. 그렇기에 설교는 영적 전쟁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다룬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을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여기고 씨름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 찾았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인간의 “영혼”을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내적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이다.³⁹⁾

3.4. 설교자 아우구스티누스⁴⁰⁾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종 고백한다. 그는 설교 안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허심탄회하게 쏟아놓기도 했다. 설교할 때 그는 앉아서 했고, 성도들은 서서 들었다(s. 172; 952). 북아프리카의 도시인 히포는 때로 너무나 더워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하기도 했다(183.18; en. Ps. 41.13). 그는 동료 설교자들에게 억지로

38)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73-74.

39)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74-75.

40) Lawless, “Preaching,” 675-76.

될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70세가 되고 노쇠해진 아우구스티누스는 게으른 동료 주교를 꾸짖기도 했다(마 25:24-30의 비유 참조). 그들은 가령 성 스테반의 날에 설교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s. 94).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된 것을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도 했다(42.3; 355.7; s. Dolbeau 28.11).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대중 연설에 늘 불만족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발음이 분명하게 나오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cat. rud. 2.3; Jo. ev. tr. 5.10).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기적으로 목이 쉬곤 했다. 분명히 후두염이 심했던 것 같고, 아마도 늑막염도 있었던 것 같다(s. 37.1; 68.1). 그는 어떤 설교에서 자신이 그 전날 설교해서 목이 더 약해졌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en. Ps. 50[51].1). 하지만 며칠을 연속해서 설교하는 일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한번은 성경봉독자가 다른 본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s. Dolbeau 5.1), 그 성경봉독자는 연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준비했던 시편을 읽었다(en. Ps. 138[139].1).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봉독자가 잘못 읽은 그 본문까지도 고려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

“트락타투스(tractatus)”라는 말과 “에나라티오(enarratio)”라는 말이 둘 다 설교를 가리키는데, 특히 “에나라티오”는 에라스무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설교에 붙인 이름이다. 이 두 단어는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보통 “에나라티오”는 성경 구절을 따라 설교한 것이다. “일반 성도들을 향해 전했던 설교(sermones 또는 sermones ad populum)”는 언제나 “성경일과표”에 따라 준비되었고, “예전적 순서”에 맞게 전해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고 없이 즉석에서 전했고, 그것을 비서들이 옮겨 적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진 설교문들 가운데에는 온전하지 못한 설교문들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설교를 다 손질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모습을 더 잘 남겨놓은 설교도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원고들은 한편으로는 오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성이 있다.

때로는 설교문 끝에 성도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장기간 설교단을 비운 것에 대해 불평한 것이 적혀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 지역으로 설교를 갔다가 아프리카의 수석 주교인 아우렐리우스의 요청으로 한 주간 더 머물기도 했기 때문이다(s. 163B.6).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은 매우 바쁜 설교자였음을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다.⁴¹⁾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시편 68:20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19.4). 한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갈라디아서 6:14를 인용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인용을 따라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중은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교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에 가까웠다. 그런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도 설교 기록자가 남겨놓았기에 우리는 그 당시 설교 현장을 보다 생생히 알 수 있다(289.6).

3.5. 설교자의 청중⁴²⁾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기록자들이 남겨 놓은 청중에 대한 기록들 중에 어떤 내용은 청중을 꾸짖는 내용이다. 가령, 부활 주일 아침에 전한 두 편의 설교들(s. 225.4; 229B.1)과 축일 지난 후 8일에 축제하던 때에 전한 두 편의 설교들(230; 252.12)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있어서 슬퍼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어떤 신임 사제들은

41)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63.

42) Lawless, “Preaching,” 676.

자신들의 흰 망토를 부활 주일 8일이 지난 어느 날 땅바닥에 펼쳐놓기도 했다. 마치 그들이 술 취하는 일보다 맨발로 땅을 밟는 일이 더 책망받을 일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대해서도 비판한다(ep. 55.35).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재빨리 사라져 버리곤 했다(s. 264.1).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것보다 축제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했다(Jo. ev. tr. 8.13). 어릿광대나 익살극이 설교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en. Ps. 30.3.11; 32.1.1).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일을 답답하게 여겼다.

한 번은 설교 듣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하기도 했다(s. 19.6). 어떤 경우에는 경기장에 구경 가는 것보다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기도 한다(51.2). “평화의 바실리카(Basilica of Peace)”에 구경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5.2; 179.10).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오해가 발생했을 때에 더 많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요청하기도 했다(355.1).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상숭배 행위나 점치는 일을 금지시켰다(Jo. ev. tr. 8.10; 9.16; 8.11; see also s. 9.3 and 15A.4). 특히 『시편 강해』 99(100).12-13을 보면, 당시 교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참된 크리스천은 “삶의 방식과 행동과 정신과 마음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극장이나 마차경주, 원형경기장의 후원자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198.2-3).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성숙한 기독교인은 이방인, 유대인, 심지어 세례 준비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기독교인은 십자가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자신 앞에 있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en. Ps. 50[51].1).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마태복음 25:40에 나오는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설교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서 자주 그 말씀을 반복했다(s. 389.5). 성숙한 신자의 중요한 태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3.6. 설교 내용상의 특징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언제나 영적인 깊이가 있었고, 신앙의 원리를 잘 설명했다. 때로 그는 자신의 신학 작품들을 설교에 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국론』 22권을 4번의 설교에 나눠서 설교하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다루었다(240-43). 그 설교들에서 그는 육체의 부활 사상을 거부하는 플라톤주의를 비판했다. 이 설교들은 『신국론』의 복잡한 표현을 쉽게 고치면서도 그의 신학적 추론이 가지는 설득력과 변증적 의도를 잘 살려내고 있다. 다른 예로, 설교 52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23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보다 쉽게 다루고 있다.

자신의 시대가 가진 문제의식들을 담은 설교들도 있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을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성(性)을 부부 사이로 제한하기보다는 혼외 성관계를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9번은 그런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138에서는 사형 제도를 통렬하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형은 회개할 기회를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희망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가지고 강조하기도 했다(232.5-6; 236A.4; 285.2; 327.2; 328.1, 7; 335C.12).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다.

둘째, 그리스도는 겸손한 의사이며, 그분의 겸손과 순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을 치유하심을 강조한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조한다(en. Ps. 32.2.29).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적 타락이나 예정론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설교자가 아니었다.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그런 이미지가 생겼지만 사실은 그의 신학과 설교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⁴³⁾ 이것은 사랑을 강조했던 그의 주석법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3.7. 설교의 수사학적 특징과 설교에 사용한 비유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탁월한 수사학자였다. 그러다 보니 그의 문체는 매우 유려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나 글의 대상에 따라 다른 문체를 보여주었다. 신학적 책들은 라틴어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다. 수사법도 자주 나타난다. 학식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리문답을 위한 책들은 문체가 쉽고 어휘도 단순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나 초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이다. 설교도 역시 단문들이 많으며, 문장이 어렵지 않다. 구어체로 쉽게 전달한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대상에 따라 다른 문체를 구사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화술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

다고 가르쳤다(doc. Chr. 4.28.61). 기독교 메시지는 전달되는 방식보다 전달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⁴⁴⁾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의 전달 기술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 그는 키케로를 따라 “언변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만족을 주고 설득하기 위하여 발언한다.”라고 주장한다.⁴⁵⁾ 키케로는 가르침은 필요에서 오는 문제이고 만족을 줌은 쾌감의 문제이며 설득함은 승패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 셋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 즉 가르칠 필요성은 말하는 내용에 의해 좌우되고, 나머지 둘은 말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⁴⁶⁾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의 전달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눴다. ‘진술체’와 ‘완만체’와 ‘장엄체’이다.⁴⁷⁾

‘진술체’(stilus tenuis, humilis, genus submissum, loqui submisse, intellegenter audiri)는 진리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때는 명료성이 제일 중요하다.

‘완만체’(stilus medius, mediocris, genus temperatum, loqui temperate, libenter audiri)는 사실과 사건을 제시하지만 청중의 심경을 유쾌하게 하고 관심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때는 우아함과 미사여구가 중요하다. 주로 권고문에 사용된다.

‘장엄체’(stilus sublimis, gravis, genus grande, loqui granditer, persuasive audiri, oboedienter)는 진지한 어휘와 거창한 문장과 웅혼(雄渾)한 제스처로 청중을 설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설득과 호소인데, 장중함

44) Lawless, “Preaching,” 677.

45) Cicero, *Orator* 21,69: “Est igitur eloquens qui ita dicit, ut probet, ut delectet, ut flectat ... probare necessitatis est, delectare suavitatis, flectere victoriae.”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 4.12.27(p. 405n69)에서 재인용.

46)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 4.12.27(p. 405).

47)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 4.12.27(p. 406n70)에서 이하의 라틴어 용어들과 설명들을 인용했다.

이 있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들에는 장엄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해야 하는 바를 실제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⁴⁸⁾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에서 다양한 비유와 은유를 사용했다.⁴⁹⁾ 예를 들어 그는 성경이 낚시 바늘과 닮았다고 한다. 입질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낚아 올리는 것이다(Jo. ev. tr. 42.1). 창조는 하나님의 약혼반지와 같은데 인간들이 타락하여 그 약혼을 깨뜨려 버렸다(ep. Jo. 2.11). 아우구스티누스의 성탄절 설교에서 성육신은 아주 절묘하게도 “말씀 없는 말씀(speechless Word; infans, ineffabile Verbum)”에 비유된다(s. 184.3; 188.2). 삶의 여행은 여관에서 잠시 머무는 안 좋은 밤에 비유된다(en. Ps. 34; s. 1.6). 여기 이 땅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환도뼈를 다친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걸어간다(s. 5.8). 주교좌에 앉아 있다고 다 주교인 것은 아니다. 어떤 주교들은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들판에 서 있듯이 그렇게 있을 뿐이다(340A.6).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에는 비유, 은유, 직유 등 여러 수사법이 등장한다.

3.8. 삶 속에서 전해지는 설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의 일상 속에서 설교가 실천되도록 노력했다. 그는 마태복음 6:12에 대해 주석하면서, 상호 간의 끊임없는 용서를 매우 강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거룩한 주교들 역시 빛진 자들이요.”라고 말한다

(56.11). 그리고 그는 또한 평교인들에게 말한다.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도 하시오(94).” 이것은 집에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목회자라는 루터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루터의 이 말은 평교인들도 목회사역을 자신들의 집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따라 한 것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한 집안의 가정은 주교와 성직자의 역할을 공유한다(Jo. ev. tr. 51.13). 성직자들과 신자들 모두 난파(難破)의 위험이 있다. 사실 주교들이 위험성이 더 큰데, 그들은 교각에 서 있거나 아니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en. Ps. 106.7).

아우구스티누스는 삶 속에서 말씀이 경험되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십자가를 매일 기억하도록 요청했다. 주기도문은 배 밑바닥에 있는 물을 빼내어 가라앉지 않게 한다(s. 56.11). 주기도문은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묵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56.12; 261.10).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양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그것은 승객들을 태우고 있는 배(Jo. ev. tr. 2.16), 사다리(s. 70A), 교사의 의자나 강단, 학교, 교실(234.2), 사탄을 잡는 쥐덫(130.2; 263.2; 265D.5 등등)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의 40년 지기였던 포시디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첫 번째 전기를 썼다. 거기서 그는 후세인들에게 이렇게 정당하게 말한다.⁵⁰⁾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병환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힘차게 맑은 정신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교회에서 설교했다.
... 진리의 빛으로 그가 보는 것이 허락된 만큼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48)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 4.12.27(p. 407). Cicero, *Orator* 21.69; *De oratore* 2.27.115를 참조하라. George Lawless, “Preaching,” 677.

49) Lawless, “Preaching,” 677.

50) Lawless, “Preaching,” 675-77. 참고로, 포시디우스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는 그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귀중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유익한 전기이다. 우리말로 아래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 최원오 역주(예관: 분도출판사, 2008).

저술은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소중한 사제(sacerdos)였으며 보편 교회의 올곧고 건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음을 드러내 준다. 거룩한 주제들에 관해 그가 쓴 것을 읽어서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직접 듣고, 직접 뵈 수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야말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v. Aug. 31.4와 9).⁵¹⁾

3.9.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예전과 설교⁵²⁾

초대 교회의 설교는 성찬식과 함께 이뤄졌다. 먼저 성경을 읽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그것에 대해 코멘트가 주어졌다. 그리고 설교가 행해졌다. 본문은 세 군데를 읽었는데,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각각 본문을 뽑았다. 이때 전하는 교훈들이 아직 고정되지는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이제 막 그 교훈들이 고정되려는 시점이었다. 그는 교훈들을 스스로 뽑아서 언급하기도 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s. 93.1)이라는 표현이나, “내가 약속한 바를 기억하여, 내가 복음서와 사도로부터 취한 읽기들은...”(s. 362.1) 등과 같은 표현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는 본문 설명이 다 안 끝난 경우에는 다음날 전날의 교훈을 반복해서 읽을 때도 있었다(cf. en. Ps. 90.2.1; Jo. ev. tr. 46.8).⁵³⁾

51)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 최원오 역주, 152-57에 나오는 우리말 번역을 라틴어 원문에 맞게 여러 군데 수정했다. 번역에 있어서 다음 영문번역을 참조했다. Possidius, “Life of St. Augustine,” in *Early Christian Biographies*, ed. Roy J. Deferrari, trans. Mary Magdeleine Muller, vol. 15,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2), 123-24.

52) Éric Rebillard, “Sermones,”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773-90.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이미 교회에는 특정 절기를 위해 고정된 교훈들의 순서가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부활절 8일 절기이다(ep. Jo. prol.; Jo. ev. tr. 9.1).⁵⁴⁾ 하지만 성경 일과표를 벗어날 자유도 있었다. 본문을 읽고 설교했던 증거들이 있다. “거룩한 복음서 읽기를 들었습니다.”(s. 233)라는 표현이나, “복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s. 174)라는 표현, 그리고 “거룩한 복음 읽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는...”(s. 66), “우리는 거룩한 말씀의 읽기가 낭송될 때에 들었습니다.”(s. 48)라는 표현이 나온다.

설교하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요청했다(ep. 29). 설교자는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은 설교자가 잘 전하도록 기도했다(s. 153.1).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말미에 “주님께로 향하오니 (Conversi ad dominum)”라고 말하면서 회중이 기도하도록 초청하곤 했다. 이 기도는 설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그것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⁵⁵⁾ 때로는 물리적으로 동쪽을 향해 서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⁵⁶⁾ 이렇게 보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도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설교 끝에 따로 송영을 부르기도 했다. 삼위일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불렀다. 삼위일체 문구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고 때로 축약되기도 했는데,

53) Rebillard, “Sermones,” 790.

54) S. Poque, “Les lectures liturgiques de l’octave pascale a Hippone d’après les traites de s. Augustin sur la Première Epître de Jean,” *RevBen* 74 (1964): 217-41.

55) F. Dolbeau, “Sermons inédits de saint Augustin prêches en 397 [5ème série],” *RevBen* 104 (1994): 34-76, annexe “Conuersi ad dominum ...,” 72-76.

56) 동쪽을 바라보는 것은 천체(天體)가 거기에서부터 뜨기 때문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다만 천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엄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천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우리 주님의 산상설교』 2.5.18; NPNF 1.6:39-40).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문 작성 이후에 나중에 첨가되기도 했다.

설교는 주로 주일에 행해졌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문에 보면, “가장 높은 주님의 날에(*superiore dominico die*; s. 159.1; 112A.1)”라든가, “가장 첫 번째 주님의 날에(*priore dominico*; s. 49.5)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토요일에도 정기적으로 설교한 것을 알고 있다. 사순절에는 매일 설교했고, 부활절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설교를 하는 주간도 있었다.⁵⁷⁾

3.10.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전달법⁵⁸⁾

설교는 감독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임자 발레리우스의 부탁으로 처음 사제로서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했다. 그 자신은 사제들이 그가 없을 때 설교하도록 시켰다. 때때로 특히 말년에는 그가 있는 앞에서 사제들이 설교하도록 하기도 했다. 사제 에라클리우스(*Eraclius*)의 두 편의 설교가 그것을 증언해 준다.⁵⁹⁾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설교하기도 했다. 그중에 특히 카르타고가 있다. 그곳의 감독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출타할 때면 언제나 아우구스티누스를 초청하여 설교하도록 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유명하여 여행 중에 다른 감독들이 설교를 부탁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는 교회당의 동쪽에 있는 반원 부분의 엑세드라(*exedra*)에서 설교를 했다. 거기에 감독의 자리와 다른 성직자들의 자리가 있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자주 언급했다.⁶⁰⁾ 그는 앉아서 설교를 했고, 사람들은 서서 들었다.⁶¹⁾

아우구스티누스는 원고를 미리 기록하여 설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즉석에서 지어낸 것(*free improvisation*)일까? 그렇지 않다. 그는 설교에 대해 구상하고 설교단에 섰음을 언급한다.⁶²⁾ 그의 설교는 속기사들(*notarii*, *stenographers*)에 의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본문을 미리 선택하고 주제를 거기에 맞췄다. 어떤 경우에는 낭독자가 예정된 것과 다른 시편을 낭독하였지만, 그는 바뀐 본문을 즉석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그 설교 주제는 회개의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⁶³⁾ 이런 사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미리 설교 준비를 해 왔음을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부분도 많았을 수 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써서 가기도 했다. 그의 설교는 자연스러웠다. 대화식의 어조였고 활력이 있었으며, 그래서 구문이 다소 불규칙적이었다. 우리는 그의 설교가 모든 문장을 다 써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대지만 작성하고 미리 암기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각 상황에 맞게 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⁴⁾

57) Rebillard, “Sermones,” 773; S. Poque, *Augustin d’Hippone, Sermons pour la Pâque, Sources Chrétiennes* 116 (Paris: Cerf, 1966).

58) Rebillard, “Sermones,” 790.

59) P.-P. Verbarcken, “Les deux sermons du pretre Eraclius d’Hippone,” *RevBen* 71 (1961): 3-21.

60) civ. Dei 22.8: “in gradibus exedrae, in qua de superiore loquebar loco …”; s. 151.4: “Ego de loco superiore moneo, dico, praedico.”

61) s. 355.2: “I am sitting down as I talk, while you will soon get tired as you’re standing.”

62) “But look, here am I, now speaking to you; before I came to you here, I gave some thought beforehand to what I am going to say to you” (s. 225.3).

63) s. 352 서문 부분: “You see, it wasn’t I who instructed the lector to sing this psalm; but it was that one up there who decided what would be valuable for you to hear, and who instructed this boy inwardly in his heart to give it to you. Let me say something about the value of repentance.”

64) Rebillard, “Sermones,” 790; R. J. Deferrari, “Saint Augustine’s Method of Composing and Delivering Sermon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43 (1922): 97-123, 193-220.

4. 나오면서: 참된 성경주석가와 참된 설교자를 기다리며...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학과 설교론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향한 그의 태도가 주석에 영향을 미쳤다.

성경은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신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성경을 묵상했다. 그는 한때 성경을 우습게 여겼지만 성경을 실제로 설교로 듣고, 스스로 묵상하고,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의 성경관은 그의 인생 여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주석은 반드시 설교로 이어지고, 설교는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진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보면 성경해석학과 설교학이 한 권에 묶여 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생각을 잘 보여주는 구성이다. 그는 성경주석은 설교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설교는 반드시 올바른 주석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는 그 적용까지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설교의 열매가 드러나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대 교회의 설교의 내용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설교였다. 신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때때로 그들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 설교를 하기도 했다.⁶⁵⁾

셋째, 살아낸 만큼 주석하고 살아낸 만큼 설교할 수 있다.

삶과 주석과 설교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그의 주석에 반영되어 있다. 교부들에게 주석과 삶은 분리되지 않았다. 초대 교회의

문서에서는 설교자가 돈을 좋아하거나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참된 설교자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⁶⁶⁾

초대 교회 문헌을 보면, “설교자가 검소하고, 진실하고, 구제에 힘쓰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다.⁶⁷⁾ 아우구스티누스는 “훌륭한 삶이 웅변적인 설교가 된다.”라고 하였다.⁶⁸⁾ 목회자의 삶이 받쳐줄 때, 그의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화력을 가질 것이다. 별로 보잘것없는 언변을 가졌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교자의 설교는 심령을 파고들어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넷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도 강조했다.

『디다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를 밤낮으로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존경하라.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⁶⁹⁾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자가 진실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이들을 존경해야 한다. 특별히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설교자의 설교가 더 은혜롭게 들린다.

다섯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인간의 영혼과 내면세계를 주목한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빛나는 곳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만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교자

66)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Didache, 정양모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3), 11.6, 11.9.

67)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 11.6, 11.9.

68)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적 가르침』, 제 4권, XXIX, 62: “copia dicendi forma uiuendi.”

69)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 4장 1절.

65) Ferdinand Hahn, 『원시 기독교 예배사』(The Worship of the Early Church, 진연섭 역, 대한 기독교서회, 1988), 44-45.

는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 자신이 먼저 영적 세계를 깊게 하고 넓혀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⁷⁰⁾

여섯째, 설교는 영적 실재(實在)를 보여주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야말로 영적 실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성도들의 현실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의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곱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론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는 설교자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 설교자는 늘 기도해야 한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기도로 한 줄 한 줄 채워간 주님의 종의 메시지였다. 그에게 설교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적 도구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의 주석법과 설교론의 원칙들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것과 사뭇 다르기도 하지만, 현대 한국 교회와 신학, 그리고 설교 강단이 잊고 있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준다. 1600년의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가슴에 생생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부록> 아우구스티누스(354-430) 연대표⁷¹⁾

354	타가스테에서 출생.	397	6월 26일, 카르타고 2차 회의.
371	카르타고에 최초로 가다.		8월 28일, 카르타고 3차 회의.
372	아버지 파트리키우스 사망. 동거녀를 얻다.		투부르시쿰 부대에서
373(20세)	『호르텐시우스』를 읽다. 아테오다투스 탄생(?). /382 마니교에 청강자(auditor; Hauschild) ⁷²⁾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혼자서 해독(『고백록』 4.16.28)		도나투스파 주교 포르투니우스와 토론. /400 『복음서의 여러 문제들』. /398 『마니교도 파우스투스에 반대해』. /401 『고백록』.
375	카르타고에서 타가스테로 돌아와 가르치다.	398	『마니교도 퀴릭스에 반대해』(12월).
376	친구의 사망. 카르타고로 돌아가다.	399	4월 27일, 카르타고 4차 회의. 『마니교도들에 반대하는 선의 본성에 대해』. 『마니교도 세쿰디누스에 반대해』. 『요기 주석』. /400 『초심자를 위한 교리 문답』. /419 『삼위일체론』.
380	『아름다운 것과 적합한 것에 대해』 집필(현존하지 않음).	400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 설교. 『복음서 저자들의 조화에 대해』. 『파르메니아누스의 편지에 반대해』. /401 『세계에 대해 도나투스파에 반대해』. 『아누아리우스의 조사에 대해』. 『수도사의 일에 대해』.
382(29세)	마니교 주교 파우스투스를 만남(『고백록』 5.3.3)	410	6월 14일, 카르타고 15차 회의. 5월 19일부터 카르타고에서 머물다가 9월 11일에 우티카로, 그리고 9월 22일에 히포 디아르휘투스로 돌아가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겨울 동안 히포 교외의 빌라로 온거. 『디오스쿠루스에게 보내는 서신』. 『세계의 유일성에 대해 페틸리아누스에 반대해』.
383	로마를 향해 항해하다. 여전히 마니교도와 친분(『고백록』 5.10.18)	411	도나투스파에 맞서 1-3월까지 설교. 4-6월까지 카르타고뿐만 아니라 키르타에서도 설교. 펠라기우스의 견해가 카르타고에 퍼지고 있는 것과 카일레스티우스가 경죄 받았다는 것을 전하는 마르켈리우스의 편지가 연말에 도착. /412 『도나투스파에 반대하는 짧은 비고』. /412 『죄인의 공덕과 사함에 대해』.
384	밀라노 수사학 교수로 임명(가을). 암브로시우스 만남(『고백록』 5.13.23)		6월 14일, 키르타에서 종교회의. 9-12월 사이 카르타고에서 정기적으로 설교.
385	모니카, 밀라노에 도착하다(늦봄).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 교류		
386	심플리키아누스와 만남(『고백록』 8.2.3-5.12). 빅토리누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플라톤주의 책들을 읽다(6월?). 폰티키아누스와 만남(『고백록』 8.6.13-7.18). 개종(8월 말; 롬 1313). 카시키아룸으로 가다(9월). 『아카데미학과에 반대해』(11월). 『행복한 삶에 대해』, 『질서에 대해』(12월; 유실됨). 『독백』(겨울).		
387	밀라노로 귀환(3월 초). 4월 24일, 세례. 『영혼의 불멸에 대해』 『운율에 대해』 집필 착수. 오스티아의 환상. 모니카의 사망.		
388	오스티아에서 로마로 가다. 다음해 후반기 까지 로마에 머물다. 『영혼의 거대함에 대해』. 『자유의지에 대해』(4권). /390 『가톨릭교회의 삶의 방식과		

71) 피터 브라운, 『아우구스티누스』, 정기문 역(서울: 새물결, 2012)에서 발췌하고 약간 수정했다.

70) Sanlon,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73.

389	마니교의 삶의 방식에 대해. 카르타고로 갔다가 다시 타가스테로 가다. /389 『마니교도에 반대하는 창세기에 대해』. /396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교사에 대해』. /391 『참된 종교에 대해』.	413	『도나투스파에 반대하는 짧은 비교 후서』. 『영과 문자』. 『신약의 은총에 대해』. 카르타고에 머물다(4월 중순). 『파울리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에게 보임에 대해』. 『믿음과 행위에 대해』.
390	네브리디우스와 아테오다투스의 사망.		6월과 8월 그리고 9월에 카르타고에 머물면서 마르켈리누스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
391	수도원을 짓기 위해 히포에 도착(봄). /392 『믿음의 유용함에 대해』. /392 『두 영혼에 대해 마니교도에 반대해』. /395 『자유 의지에 대해』(a-3권).	414	『신국론 1-3』(마르켈리누스 사망 이전에 쓰여짐). /415 『신국론 4-5』. /415 『본성과 은총에 대해』. 『율리아나에게 보내는 파부 신분의 종용에 대해』. 『삼위일체론』 모습을 드러내다.
392	8월 28-29일 히포에서 포르투나투스와 토론. 『마니교도 포르투나투스를 반대하는 행적』. 그리스인들의 성경 해석을 라틴어로 번역해줄 것을 히에로니무스에게 요청하다. /420 『시편 해설』(392년까지 쓰여진 시편의 앞 32편에 대한 주석).	421	/416-17 『요한복음 강해』(아마 407-408에 시작). /422 『도나투스파 주교 가우렌티우스에 반대해』. 6월 13일, 카르타고 18차 회의. 『율리아누스에 반대해』.
393	12월 3일, 히포의 종교회의. 『믿음과 신경에 대해』를 설교. 『미완성 축자적으로 해석한 창세기에 대해』.	422	/423 『라우렌티우스에게 보내는 교리 요강』. /424 『죽은 이를 위한 배려에 대해』.
394	히포에서 '축재' 역제. 『도나투스파에 반대하는 시편』. 『주님의 산상 수훈에 대해』. 6월 26일, 카르타고 1차 회의. 카르타고에서 『로마서』 강의. /395 『로마서에서 취한 84가지 주제에 대한 해설』. 『미완성 로마서 해설』. 『갈라디아서 해설』. 『거짓말에 대해』.	423	/425 『툴키티우스의 8가지 질문에 대해』.
394-404	아우구스티누스, 발레리우스 주교 후임자로 서임.	424	푸살라의 안토니우스 문제.
396	『여러 질문에 대해』 심플리키아누스에게. 『마니교도들이 근본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편지에 반대해』.	425	『신국론 18』. /427 『신국론 19-22』. 히포에서 추문. 설교 395-6(12월-1월). 밀레비스의 세베루스 사망.
395-398	『기독교도의 싸움에 대해』. 『기독교적 가르침』(426년에 완성).	426	제총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밀레비스 방문. 세베루스의 계승자로 에라클리우스를 지명. /427 『은총과 자유 의지에 대해』. /427 『징계와 은총에 대해』. /427 『재론고(보정론; Retractationes)』. /28 『아리우스파 주교 막시미아누스와 비교』. 『아리우스파 주교 막시미아누스에 반대해』. 『쿠오드볼트레우스에게 보내는 이단들에 대해』. 프로스페루스와 힐라리우스로부터 편지를 받다. /429 『성도들의 예정에 대해』. /429 『인내의 은사에 대해』.
		429	/430 『유대인에 반대하는 논설』.
		430	/430 『미완성 율리아누스의 두 번째 답변에 반대해』. 8월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사망 및 매장.

참고문헌

우병훈. “교부 바실리우스에 의한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수용.” 『기독교 철학』 2 (2004): 7-47.

한병수.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 서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 *Didache*. 정양모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3.

Augustinus. 『고백록』. *Confessiones*. 성염 역. 파주: 경세원, 2016.

_____. 『고백록』. *Confessiones*. 최민순 역. 서울: 바오로딸, 2011.

_____. 『그리스도교 교양』.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_____. *Saint Augustin: Sermon on the Mount, Harmony of the Gospels, Homilies on the Gospels*.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R. G. MacMullen. Vol. 6,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First Series. New York: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8.

_____. *Sermons on the Liturgical Seasons*. Edited by Hermigild Dressler. Translated by Mary Sarah Muldowney. Vol. 38,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9.

_____. *St. Augustine: Sermons for Christmas and Epiphany*. Edited by Johannes Quasten and Joseph C. Plumpe. Translated by Thomas Comerford Lawler. Vol. 15, Ancient Christian Writers. New York, Mahwah, NJ: The Newman Press, 1952.

_____. *St. Augustine: The Lord's Sermon on the Mount*. Edited by Johannes

72) 마니교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눴다(성염, 『고백록』, 186n111). peccator(죄

인) - auditor(청강자; 일반세례자) - sanctus(성도) - perfectus(정진자) - electus(간선자).

- Quasten and Joseph C. Plumpe. Translated by John J. Jepsen. Vol. 5, Ancient Christian Writers New York; Mahwah, NJ: Paulist Press, 1948.
- Barnes, T. D. *From Eusebius to Augustine: Selected Papers, 1982-1993*. Brookfield, VT: Variorum, 1994.
- Brown, Peter.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정기문 역. 서울: 새물결, 2012.
- Cain, Andrew. "Jerome's Pauline Commentaries between East and West: Tradition and Innovation in the Commentary on Galatians." In *Interpreting the Bible and Aristotle in Late Antiquity: The Alexandrian Commentary Tradition between Rome and Baghdad*, edited by Josef Loessl and John W. Watt, 91-110. Farnham, Surrey, England; Burlington, VT: Routledge, 2011.
- Courcelle, Pierre. *Recherches sur les Confession de saint Augustin*. Paris: de Boccard, 1950, 1968.
- Deferrari, R. J. "Saint Augustine's Method of Composing and Delivering Sermon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43 (1922): 97-123, 193-220.
- Dolbeau, F. "Sermons inédits de saint Augustin prêches en 397 (5eme serie)." *RevBen* 104 (1994): 34-76.
- Fitzgerald, Allan 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 Froehlich, K. "Which Paul? Observations on the Image of the Apostle in the History of Biblical Exegesis." In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Theology*, edited by Bradley Nassif, 279-9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 Grant, Robert M.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Rev. ed. London: Black, 1965.
- Hahn, Ferdinand. 『원시 기독교 예배사』. *The Worship of the Early Church*. 진연섭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8.
- Hauschild, Wolf-Dieter and Volker Henning Drecol.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Vol. 1, Alte Kirche und Mittelalter, 2nd e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6.
- Hauschild, Wolf-Dieter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Vol. 1, Alte Kirche und Mittelalter, 2nd e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0.
- Kolbet, Paul R. *Augustine and the Cure of Souls: Revising a Classical Ideal*.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9.
- Lawless, G. "Augustine of Hippo (354-430)." In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edited by W. H. Willimon and R. Lischer, 19-22. Louisville, 1995.
- _____. "Augustine of Hippo as Preacher." In *Saint Augustine the Bishop: A Book of Essays*, edited by Fannie LeMoine and Christopher Kleinhenz, 13-37. 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94.
- Lössl, J. "Augustine, 'Pelagianism,' Julian of Aclanum, and Modern Scholarship." *Zeitschrift für antikes Christentum* 10 (2007): 129-50.
- Macdonald, Scott. "The Divine Natur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edited by Eleonore Stump, 71-102. Cambridge, U.K.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ara, Maria Grazia. "Ricerche storico-esegetiche sulla presenza del corpus paolino nella storia del cristianesimo dal II al V secolo." In *Paolo di Tarso e il suo epistolario*, edited by M. G. Mara, 6-64. L'Aquila: Japadre, 1983.
- Mühlenberg, Ekkehard. "Augustin."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dited by Hans D. Betz, Don S. Browning, Bernd Janowski, and Eberhard Jüngel, vol. 1. Tübingen: Mohr Siebeck, 19984.
- O'Leary, Joseph S. *Questioning Back: The Overcoming of Metaphysics in Christian*

- Tradition*. Minneapolis: Winston Press, 1985.
- O'Meara, John. "Philosophy from Oracles' in Eusebius of Caesarea and Augustine's Cassiciacum Dialogues." *Recherches Augustiniennes* 6 (1969): 105-38.
- Poque, S. "Les lectures liturgiques de l'octave pascale a Hippone d'apres les traites de s. Augustin sur la Premiere Epitre de Jean." *RevBen* 74 (1964): 217-41.
- _____. *Augustin d'Hippone, Sermons pour la Pâque*. Sources Chrétiennes 116. Paris: Cerf, 1966.
- Possidius. "Life of St. Augustine." In *Early Christian Biographies*, edited by Roy J. Deferrari, translated by Mary Magdeleine Muller, 67-124. Vol. 15,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Vita Augustini*. 이연학, 최원오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8.
- Sanlon, Peter T. *Augustine's Theology of Preach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 Thiselton, Anthony C. 『성경해석학 개론』.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_____.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9.
- Verbarken, P.-P. "Les deux sermons du pretre Eraclius d'Hippone." *RevBen* 71 (1961): 3-21.
- _____. "Lire aujourd'hui les Sermons de saint Augustin. A l'Occasion du XVIIe Centenaire de sa Conversion." *NRTh* 109 (1987): 829-39.
- _____. "Saint Augustine's Sermons: Why and How to Read Them Today." *Augustinian Heritage* 33 (1987): 105-16.
- Williams, Rowan. "Language, Reality and Desire in Augustine's *De Doctrina*." *Literature and Theology* 3 (1989): 138-50.
- Woo, B. Hoon. "Augustine's Hermeneutics and Homiletics in *De doctrina christiana*: Humiliation, Love, Sign, and Discipline." *Journal of Christian Philosophy* 17.2 (2013): 97-117.
- _____. "Pilgrim's Progress in Society: Augustine's Political Thought in the City of God." *Political Theology* 16, no. 5 (2015): 421-41.